

일과 행복

안 주 업*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다. 왜 그럴까? 지난 40년 동안 해외에서는 행복경제학이 자리잡아 갔지만 국내의 행복 연구는 일천하여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이런 질문조차 던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과 행복’을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일과 행복 협동연구의 핵심 목적은 일에 초점을 맞춰 한국인의 행복결정 요인을 탐색하여 일을 통한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행복도를 측정하는 자료를 구축하여 국내에 행복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국내외 전문가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3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는 ‘일과 행복 연구를 시작하며’로 시작하여 ‘일과 행복 연구를 마무리하며’로 끝나는 3권의 연구보고서(총 32개의 장)에 담겼는데, 행복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행복의 결정요인(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과 행복의 효과(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이 주를 이룬다. 머잖아 출간 예정인 3차년도 연구보고서는 행복경제학 4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논문과 부탄의 국민총행복을 소개하는 글을 담았다.

그 외 연구 성과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년도(2015년)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 다양한 행복도(현재와 과거 및 미래의 삶의 만족도, Candril’s ladder, Eudaimonia를 포함)를 0~10점 척도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에서 진일보한 행복 연구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프랑스, 호주, 일본, 부탄, OECD의 행복 연구자 6명의 기조연설과 원탁회의 및 국내외 연구자의 12편의 논문이 발표된 2017년 ‘일과 행복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k and Happiness)’ 개최를 들 수 있는데, 행복 자료의 구축과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국내 행복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yahn@kli.re.kr).

이번호에서는 일과 행복 3차년도 보고서에 게재될 예정인 4개의 논문을 소개한다. 첫 번째 논문은 ‘전 국민의 91% 이상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 국민총행복의 추구를 정부의 의무로 헌법에 명시한 나라, 부탄의 국민총행복을 개발철학과 비전으로서 국민총행복의 개념, 이를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지수,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민총행복조사, 국민총행복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모든 정부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담은 5개년계획 등을 소개한다. 먼저 ‘국민총행복이 국민총생산보다 중요’하다는 ‘가치 있는 개발’(총체성, 균형성, 집단성, 지속가능성, 공정성)의 개발전략, 국민총행복의 4대 기둥(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발전, 환경 보전, 문화의 보전과 창달, 선치)과 9대 영역(심리적 안녕, 건강, 교육, 문화다양성과 탄력성, 시간 활용, 선치, 공동체 활력, 생활수준, 생태다양성과 복원력)의 개념을 소개한다. ‘분권화 양상을 통한 정의롭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Just, Harmonious and Sustainable Society through Enhanced Decentralization)’을 목표로 하는 제12차 5개년계획(2018-2023)은 16개 국가핵심결과 영역과 국민총행복의 9대 영역을 결합하고, 국민총행복정책심사도구를 이용하여 이에 포함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의 국민총행복 기여도를 검토함으로써 정책과 국민총행복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탄의 국민총행복에 대한 위협요인들과 이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공동가치의 지속적 유지 및 이의 새로운 미래가치와의 부합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구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던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지역 수준으로 분석범위를 확장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삶의 인식 부가조사(2015년)와 시군구 수준의 지역 특성을 결합하여 다양한 지역 특성이 이에 속한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핵심적 발견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주민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으로 물리적 인프라의 개선 등 현재의 지역개발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또한 지역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을 제고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환경오염이 건강에의 위협을 통한 간접적 효과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행복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세 번째 논문은 압축적 인구고령화 속에서 법정퇴직연령이나 평균 은퇴연령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앞서는 현실과 이에 따라 고령층의 은퇴 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은퇴 후 고령층의 생활범위가 좁아지고 이들이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주거형태나 주거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에 착안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에 패널분석모형을 적용해 고령층의 은퇴 후 주거이동이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고령층의 은퇴 후 주거이동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개선시키고,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전월세에서 자가를 획득하였을 때 더욱 커지는 한편 역방향의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또한 지역이동을 보면, 서울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때와 대도시에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은퇴 고령층이 주거이동에 따라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 고령층의 주거복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마지막 논문은 직업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민간부문과 비교하고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공공서비스의 질, 나아가 정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에서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가 늘었다는 현실에 착안하여 ‘타인과 사회에의 선의 실천’이라는 공공봉사동기를 가진 공공부문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분석인 셈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주요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에게서 전반적 직무만족도가 상승한다. 이를 세부 직무만족도별로 보면, 공공부문 근로자에서는 직무내용, 의사소통,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반면, 민간부문 근로자에서는 임금과 근로환경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 부문 근로자의 보상동기를 포함한 직업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적 성과보다는 협업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의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 성과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인사관리에 주는 시사점으로, 임금이나 근로환경 등이 이미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업무의 배정과 직장 내 비정규직 친화적 또는 협력적 분위기의 조성을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급속한 세계화 및 고령사회의 도전에 직면하여 현 정부를 포함한 미래의 정부가 모든 국민의 행복 제고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국정방향을 설정할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또한 일과 행복이라는 시각에서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친 노동과 여가 수준의 적정성을 추구함으로써 생애행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불비한 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으로 압축되는 일하는 문화와 노는 문화가 행복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KLI**